

바이든, 평화프로세스 공감...북핵접근은 원칙 견지

한반도 정세 어떻게 바뀔까

문 정부 중재자 역할 다시 시동

대북정책 '스텝 바이 스텝' 전망

방위비 분담금 협상 압박 줄어들 듯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동력 확보를 위해 바이든 후보 측과의 소통 강화에 나설 전망이다. 특히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도 이행 과정 방식에선 일부 조정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되는 만큼 대북 정책을 포함, 미국의 외교 정책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어서다. 동시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 증폭되는 미중 갈등 등 양국 간 현안에 대한 재검토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목표로 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구상을 이어가며 양측의 긴밀한 협의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5일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외교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노력에 공백이 없도록 미국과 협력하고, 남북관계 진전 및 평화 정착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바이든 후보 역시 지난달 29일 연합뉴스에 보낸 기고문에서 "비핵화한 북한과 통일된 한반도를 향해 계속 나아가자"이라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공감하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다만 향후 추진 과정은 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사뭇 다를 전망이다. 2018년부터 2019년 초까지 이어진 '한반도 평화의 봄'은 세 차례 남북 정상 회담,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 등 남북미 정상의 '톱다운' 방식으로 추동력을 확보해왔다. 하지만 바이든 후보는 대선 기간 "원칙에 입각한 외교"를 강조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

장의 만남이 북한에 정당성만을 부여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보통압', 즉 실무협상부터 단계를 밟아가는 대북정책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정교한 '대북 로드맵'이 나오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으로도 연결된다. 임기를 1년 반 남겨 놓은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급해질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시간표에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북한이 새로운 미국 행정부와 대화하도록 하는 '중재자 역할'에 다시 시동을 걸 가능성 역시 점쳐진다. 이 과정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북미대화 촉진이라는 선순환 구상을 설득할 수도 있다. 특히 지난 9월 유엔 총회 연설에서 밝힌 종전선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남북방역협력 등 구체적인 한반도 평화 어젠다에 대한 공감의 폭을 넓힐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후보가 북한의 핵능력 축소 동의를 조건으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톱다운' 방식을 병행하는 노력을 이어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후 줄곧 트럼프 행정부와 호흡을 맞춰온 만큼 새 행정부와 인적 접촉면은 좁지만, 향후 정부 간 채널이 가동되면 한미동맹 유지·발전을 위한 행보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핵심 현안인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우선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방위비 분담금의 5배 인상을 요구했다가 한국 측의 요구로 증액 폭을 50%로 낮추긴 했으나 이견은 여전하다. 이에 바이든 후보는 "우리의 군대를 철수하겠다는 무모한 협박으로 한국을 갈취하기보다는 동아시아와 그 이상의 지역에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 우리의 동맹을 강화하면서 한국과 함께 설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유연성을 발휘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DMZ 방문했던 바이든 후보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2013년 12월 7일 부통령 당시 판문점 인근 올렛초소(GP)를 방문, JSA경비대 대 소대장으로부터 비무장지대(DMZ) 경계태세에 대해 브리핑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DJ와 넥타이 바꿔 댔던 바이든 햇볕정책 지지 박지원·문정인 등 文 정부 다수 인사와도 인연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와 직접적인 접점은 없지만 오바마 정부 당시 주미대사를 역임했던 한덕수 전 총리 등 직간접적으로 바이든과 연결고리를 지닌 인사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2012년 미국 대선 직후 한국의 대선 후보로서 바이든 당시 부통령 당선인에게 축전을 보낸 것이 인연이라던 인연이다. 한국의 역대 대통령 중 바이든 후보와 가장 인연이 깊은 인물은 바로 김대중(DJ) 전 대통령이다. 두 사람은 1980년대 초 김 전 대통령의 미국 망명 시절부터 교분을 쌓았다. 지한파로 통하는 바이든 후보는 김 전 대통령의 대북 포용정책인 햇볕정책을 열렬히 지지했고,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 중 하나로 김 전 대통령을 꼽기도 했다. 특히 2001년 청와대에서 김 전 대통령과 오찬을 하던 중 즉석에서 넥타이를 바꿔 맨 일화가 유명하다. 당시 김 전 대통령의 넥타이에 수프가 묻어있었지만 바이든 후보는 향후 미국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행운의 상징으로 이를 보관해왔다는 후문도 있다.

현 정부 인사들 가운데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활동한 원로들이 주목받는 것도 김 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의 각별한 인연 때문이다. 우선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1970년대 초반부터 미국에서 사업가로 활동하며 바이든 후보와 인연을 맺고 약 50년간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문정인 통일외교

안보특보 역시 바이든 후보와 여러 차례 만남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문재인 정부의 대미·대북 외교에서 박 원장이나 문 특보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청와대와 바이든 후보 측의 연결고리가 약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향후 대미 외교에 있어 큰 결림돌이 되지는 않으리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외교정책의 기본 노선이라는 면에서 접근하면 미국 민주당이 오히려 공화당에 비해 문재인 정부와 '궁합'이 좋다는 점에서 양국 외교당국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이 어렵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클린턴 정부와 김대중 정부에서 활동한 원로들을 중심으로 접점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고, 나아가 문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 역시 김 전 대통령 때의 '넥타이 인연'을 이어갈 새로운 연결고리를 금세 만들 수 있다는 낙관론도 제기된다.

이런 점에서 문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와 소통의 첫 단추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끼울지도 관심사다.

우선 청와대는 최대한 이른 시점에 두 정상의 통화를 추진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바이든 후보의 취임식이 열리는 내년 1월 20일 이후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결과에 불복해 소송을 이어가는 등 미국 내 혼란이 제대로 수습되지 않는다면 이런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ju.co.kr-연합뉴스

여야 "동맹 강화" 한 목소리...비핵화 온도차

여-야는 미국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의 승리에 축하의 뜻을 전하며 '한미동맹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북핵 등 한반도 이슈의 각론에서는 우려와 기대가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8일 구두 논평에서 바이든 후보의 승리를 축하하며 "새 미국 지도부가 이제 한국과의 경제 군사 동맹을 넘어 평화 동맹까지 추진하길 바란다"면서 "조속히 한국을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임 대통령의 주요 정책과 어젠다가 검토되는 100일 이내에 새로운 행정부 인사와 네트워크를 쌓고 한반도 문제를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회 차원의 방침 계획을 밝혔다. 국회 외통위원장인 송영길 의원은 통화에서 "오바마 정부 때와 달리 지금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을 갖췄다는 점에서 차기 미국 정부가 북핵 상황을 방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트럼프 정부가 추진해온 북

미 비핵화 대화가 정권교체를 계기로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우려에 선을 그은 것이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축하 인사를 전하며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고 발전적 관계로 나아가길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미국 국민들은 변화를 택했다"며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고 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바이든 정부는 민주주의의 동맹을 가장 선호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며 "이는 중국과 미국의 갈등 구조가 더 심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위치를 차지해야 할지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과는 다른 정책을 쓸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미동맹(에 관한) 입장은 우리의 입장을 좀 더 이해하는 것 같고, 북핵 문제에 관해서는 비핵화가 먼저 진전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비슷하다고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오광록 기자 kroh@

불안 따윈 1도 없어.

새로운 렉스턴

믿고 간다

ALL NEW

REXTON

미리 사고를 예방하는 최첨단 자율주행 시스템 IACC

사고시 탑승자를 보호하는 초강력 4중 구조 프레임

강하고 부드러운 주행을 위한 8단 전자식 자동변속기

쌍용자동차 대리점에서 참신하고 유능한 영업인력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아래 해당 판매점에 연락 바랍니다.

• 광주권 (062) : 서 광 주 383-3434	광주광산 952-3330	광주침단 971-0990	광주빛고을 655-4001	광주백운 233-2311	광주중앙 573-8900	광주중앙 529-0003
• 전남권 (061) : 순천중앙 723-7100	목포중앙 277-8000	순 천 745-3666	여 수 683-1800	목포하당 285-7576	광 양 791-0071	나 주 331-1500
화 순 371-3555	장 흥 863-2600	나주시청 334-2727	영 암 473-3456	강 진 433-3100	해 남 537-3100	장 성 395-0007
담 양 383-5811	완 도 554-4545	영 광 353-9500	보 성 852-2892	서 광 양 761-8900	무 안 454-0099	고 흥 835-5050
진 도 542-5888	함 평 324-3800	여수구룡 642-1400	구 레 782-9300	곡 성 362-4400		